

「離散家族찾기」와 「建築物의 呼稱」에 대한 所感

崔 昌 奎 / 신진건축

요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난 가장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사건이 있다면 <離散家族찾기>라고 서슴치 않고 말할 수 있겠다. 멕시코 세계 청소년축구의 흥분된 환희, 안방에서 발을 구르고 박수를 치면서 온 가족이 환성을 올렸던 그것과는 전혀 다른 哀痛嘆恨, 그러면서도 想像과 期待를 물고 오는 이 企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일 것이다. 이는 전국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哀絶함이기에 어떤 政策이나 投資보다도, 어떤 行事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筆者는 이 企劃을 대하면서 나름대로 냉철한 비판적 소감을 가져보았다.

그것은, 만일 이 企劃이 政府 Side에서, 혹은 創意·親切·奉仕라고 쓰여진 3각형 표찰의 官庁 책상 위에서 創出된 기획이었다면 과연 이처럼 경이적인 성과가 나타났을까 하고 말이다. 따라서 이 行事는 우연한 企劃이었기에 이렇듯 경이적인 성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싶다.

누가 우리의 血肉을 갈라 놓았느냐는 따지고 싶지 않다. 그것은 이미 역사적 史實이라는 범주에 속하는 일 이기에 是正도 誇張도 歪曲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筆者도 이번 기회를 통해 가까운 친척을 찾은 사람 중의 하나이며 또 사돈을 만나기도 했다. 그러나 친척과 사돈을 만났으면서도 왜 그동안 만나지 못했느냐, 또 만나지 못했던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은 생각도 못했으며 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만났다는 환희의, 도취에서라는 변명으로서가 아닌, 時間的(즉 歷史가 된 事實)인 마력 앞에서는 인간의 理性 따윈 너무나 하찮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바른 해답인 줄로 안다.

물론 상봉가족 중에는 “KBS 감사합니다”의 연발이나 “대한민국 만세” “김일성이 이 자식아!”를 외친 사람들도 있긴 하다. 통곡을 하는 사람, 졸도 하는 사람, 말을 못하고 멍한 사람, 몸부림치는 사람 등 다양각색의 못짓들. 筆者는 60평생을 통해 많은 영화·연극·소설을 보고 읽어 왔지만 이렇듯 박진감 넘치는 진지한 표정과 연기와 사연을 본 바가 없다.

부모나 자기 이름, 심지어 고향마저 모르는 血肉이 “맞다 맞다”를 외치는 순간 나는 <血靈의 引力·피의 부름> 같은 것을 느꼈다. 그것은 科學이나 五感이 아닌 直感, 그것도 原始부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내왔던 동물적 본능에 의한 - 계산이나 증거를 초월한 - 텔레파디(Telepathy)의 인 것이라는 걸 느꼈고 驚異라는 것 또한 비로소 체험했다. 벽보 판이나 전단을 든 한사람 한사람의 表情 속에서 장난기나 농같은 것은 발견할 수 없고, 그 진지함과 심각함은 오히려 처절하기까지 했다.

쏟아지는 눈물(이 눈물은 거의가 환희의 눈물이다), 떨리는 對話, 움켜쥔 손의 경험, 離散家族들이나 그들을 지켜 보는 사람들이나 진행을 맡은 KBS 직원들, 누구 하나 울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하늘도 무심치 않아 비는 자꾸만 내려 가로등을 적셨고 草木을 울렸다. 그 비눈물은 벽보 판과 전단을 적셨고 찢었으며 글자를 흐리게 했다. 그러나 광장과 홀의 인파는 喑주림도, 밤도, 비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왜 이런 驚異的인 事態가 벌어졌는가?

그 이유를 요약해 보면, 이는 官의 發案主導였던 아니었던 그것은 컬러 TV의 視覺的인 동시성과 현장성 그리고 계산되지 않은 우연한 企劃의 결과였다. 따라서 打算的이 아니고 의도된 연출이 아닌 요인들이 이 프로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고 해석해 보았다.

하여간 근래에 보기도문, 그것도 참으로 호뭇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만일 노벨賞 부문에 放送賞이 있다면 KBS는 마땅히 수상감이다. 또한 年末에 있을 국내 10大 빅 뉴스에 1등은 맡아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닐 것이며 이 企劃發案 PD에게도 마땅히 훈장과 기획공로상을 주어야 한다는게 필자의 생각이다.

이상과 같이 離散家族찾기 운동에 대한 개인적인 느낀 바를 적어 보았다. 그런데 우스운 것은 이로인해 열토당토 않는 또 하나의 所見이 떠올랐다는 것이다. 그것은 建築士로서의 職業意識에서인지 몰라도 KBS의 홀, 건물의 内外壁, 계단, 광장 등에 이름을 붙여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단편적으로 떠올라 여기에 開陳하여 보고자 한다.

대개의 경우 동서양을 막론하고 地名·人名·街名은 물론 건물이나 광장에는 그 呼稱이 있게 마련이며 作名에 따른 緣由도 다양각색인 줄로 안다. 그리고 既存呼稱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농후한 사건이나 기념성 같은 일이 발생하면 호칭을 바꾸어 부



르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한 作名의 경향을 살펴보면 그 나라의 政治理念이나 國民性 그리고 국민의 수준같은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스페인 마드리드의 街路名을 보고 놀란 일이 있었다. 그곳에는 GOYA·STREET·세르반테스路 베라스케스路 등등, 그나라의 세계적인 화가·문인 등의 이름이 붙여진 거리들이 많았다. 그리고 공산진영의 경우 레닌광장·스탈린街 등 정치가나 군인의 이름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특이한 것은 과학자·사상가·종교가의 이름이 쓰여진 곳뿐만 아니라 어떤 기념할만한 數字와 日字가 사용된 곳도 가끔 보았다.

西베를린의 七月二十三日街 등은 좋은 예가 되겠지만, 우리의 경우는 그 중간쯤 되는 것으로 군인·문인·

사상가의 이름을 딴 거리가 있으며 더욱 특이한 것도 가끔 있다(울지로·퇴계로·울곡로·충무로·세종로·충정로·테헤란로 등).

그런데 이런 名稱은 누가 作名하는가? 대개의 경우 官이 作名하는 것이 상식화 되어 있다. 筆者는 아직껏 우리 사회에서 교량·街名·建物名 등을 文人이나 國民에게 공모모집한 예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官이 作名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때문에 그 나라의 街名은 물론 도로·교량·건물명칭의 경향으로서 한 나라의 정치·문화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어느 학교의 後庭에 疏林이 있는 언덕이 있었다. 산책하기에는 걸맞지 않은 그 小路에 장난기 많은 어느 학생이 <南佛路>라는 풋말을 만들어 세

전에 떠올렸던 모든 것의 이름에 대한 생각이 되살아나 이 글을 써보는 것인데,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여의도의 이름부터 5.16광장, 여의도동 따위가 걸맞지 않다는 느낌이며 KBS 본관, 그 정면계단, 외벽 등에 이름을 붙여 봄이 어떨까 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 이름은 온 국민을 상대로 공모해서 멋있는 것을 골라 붙인다면, 머지않아 역사적인 사실이 될 離散家族찾기 운동을 우리는 더욱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佛門의 哲理은 <形者必滅> 이요 <會者定離> 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會者定離의 반대인 <離者定會> 라는 놀라운 사실을 체험하고 있다. 인결은 간데 없어도 산천은 옛과 같다고 옛 詩人은 노래했다. 사람은 가도 地名은 남는다는 사실을 筆者는 경험한 바가 있다.

중국 북경의 街路名 중에는 옛날 몽고족이 점령 당시 그들 특유의 騎馬가 달릴 때 나는 말발굽 소리를 표현한 鴉鴉胡同(가가후똥, 가가란 말발굽 소리의 표현이며 胡同은 뒷골목길이란 뜻)이라는 거리가 있다. 그 街路名을 읽고 어린 筆者의 마음에도 중국인들은 멋을 아는 민족이구나 하고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일본의 仙台市에는 庄助橫丁(쓰스케요코쵸-)라는 이름의 뒷골목이 있다.

즉, 仙台地方의 민요에도 나오는 庄助란 자는 천하에 둘도 없는 탕아로서, 부모가 남긴 막대한 재산을 이 뒷골목에서 탕진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물론 橫丁는 뒷골목이라는 뜻이지만 옛날의 탕아 庄助가 건들거리면서 다니던 모습이 보이는 것같은 뒷골목길이다.

이렇듯 외국에는 나름대로 멋 있고 웃음이 절로 나오는, 또 짜릿한 정취를 풍기는 거리나 건물·다리이름이 많이 있다. 筆者는 여행 중 그들의 것과 우리의 서울을 비교해 보면서 우울할 때가 많았다.

공산진영에서야 특정인물을 우상화·신격화 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왜 좀더 낭만적이면서도 시적인 그리고 익살있는 이름을 붙이지 못하는 것일까? 이번 일을 계기로 통국의 광장(이스라엘의 흉내가 아닌),

斷腸의 계단, 환희의 홀, 애절의 壁, 통한의 길, 기도의 壁, 定會의 다리, 吶哭의 기둥, 절규의 마당같은 類型의 이름을 널리 공모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이번 離散家族 찾기가 기획이나 운동이나 행사나 사건이냐에 대한 그럴듯한 호칭을 붙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번 일에 관한 모든 기록이나 映像들을 자료로 정리하여 독립기념관(가칭)에 전시하는 것도 뜻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가 4천만을 돌파했다고 한다. 4천만이 모두 다 이름을 가지고 있다. 1억이 되는 미래에 가면 數字로 호칭할지 모르지만(지금도 우리는 고유번호를 가지고 있긴 하다) 사람이 죽은 후에 돌을 깎아 이름을 새겨놓는 경우가 허다하다. 시인 素月은 招魂에서 “산산히 부서진 이름이여 불러도 대답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라고 노래했다. 그렇듯 인간뿐만이 아닌 建物·道路·橋梁·廣場地名에 더 이상 즉흥적인 이름을 붙이는 愚를 범하지 말자고 외치고 싶은 생각이다.

더우기 우리 建築이라는 전문적인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建築이란 그 社會狀況 속에서 生成되는 것이며, 그 이상도 이하도 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건축이 表現과 試圖의 學問이기도 하다면 멋있고 시적인 명칭을 붙여서는 안된다거나 나쁘다는 이유가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設計한 建物이나 교량같은 構造物이라도 우리의 손으로 作名의 시도는 해볼만한 일이 아니겠는가.

筆者는 가끔 住宅設計를 의뢰받는다. 그럴 때면 XY씨댁이니 박사장댁이니, 또는 邸宅 따위의 호칭을 써본 적이 없다. 대신 그의 가족 중에 가장 나이 어린 아이 이름을 따서 종식이네 집, 선건이네 집 하는 식으로 호칭했으며 圖面의 메인 타이틀에도 그렇게 썼다. 이것을 嘖笑하는 사람도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고집스레 쓰고 있다. 장차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일은 전혀 계산되지 않은 우연한 기회에 이루어진 筆者의 發想이기에 의외의 驚異의인 호응을 기대해 보는 것이다.<*



웠다. 그 후부터 그 길은 영원한 南佛路가 되었고 감상적인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길이 되었다는 사례를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自由의 집, 돌아오지 않는 다리, 한탄강 등 戰火의 내음이 물씬 풍기는 곳에 왜 이렇듯 詩的인 이름을 붙였을까. 그 이름을 붙인 作名者를 알고 싶은 마음이다. 더군다나 제1·제2·제3 한강교, 이 얼마나 흥취스러운 橋名인가 라고 느낀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 한강첫다리, 행주나루다리, 동작나루다리, 建築士들의 집(建築士會館) 등을 몇번이고 입 속에서 중얼거려 본 일이 있다.

이번 離散家族찾기 운동으로 인해 여의도에 새로운 광장, 즉 만남의 廣場이 생겨나기에 그것이 계기가 되어